



2026. 6. 2 (화)

금융 Analyst **조아해** like.cho@meritz.co.kr
RA **공건희** kunhee.kong@meritz.co.kr

News

금감원, 홍콩 ELS 과징금 7000억원대로 감경..4일 임시 제재심

머니투데이 <https://zrr.kr/vzVOth>

금융감독원이 홍콩 H지수 ELS(주가연계증권)를 불완전판매한 금융회사에 대한 과징금을 7000억원대로 대폭 감경하는 쪽으로 가닥을 잡아 지난 2월 금감원 제재심이 확정한 1조4000억원의 절반 수준에 그치는 규모로, 금감원은 은행권의 사후 수습 노력과 재발 방지 대책, 위법행위에 대한 동기 등을 종합적으로 감안

중소기업 대출 막히나...은행권 "자본하한 규제에 자본 수급소 더 쌓아야"

아시아경제 <https://zrr.kr/EbY0pL>

내년부터 바젤Ⅲ 최종안에 따른 자본하한 규제가 강화되면서 은행권의 중소·중견기업 대출 여력이 위축될 수 있다는 우려 은행들은 생산적 금융 확대 기초와 건전성 규제가 충돌할 수 있다며 무등급 기업에 대한 예외 규정 마련 등을 금융당국에 건의

기업승계 시장 주목하는 은행권...우리은행, '생산적 기업승계' 승부수

더팩트 <https://zrr.kr/DeQrP8>

은행권이 중소·중견기업 기업승계 시장 공략에 속도를 내는 가운데 우리은행이 전담 조직과 외부 전문가 협업을 앞세워 전략을 발표 우량 중소·중견기업의 폐업·사업 축소 우려가 커지자, 기업승계를 고용 안정과 기술력 보존, 공급망 유지를 위한 생산적 금융 과제로 확장하겠다는 구상

채권추심업 허가제 추진 본격화...소비자 보호 기대 속 금융권 '긴장'

데일리한국 <https://zrr.kr/RaaX2j>

금융당국이 매입채권추심업을 등록제에서 허가제로 전환하기로 하면서 채권추심 시장 전반의 구조 변화가 예상 금융당국은 불법·과잉 추심을 차단하고 금융소비자 보호를 강화하겠다는 방침, 금융권에서는 채권 회수 비용 증가와 중·저신용자 대상 금융공급 위축 가능성을 우려

'구천피' 턱밑까지 올라선 증시...공매도·빚투도 '사상 최고'

뉴스1 <https://zrr.kr/NUboia>

국내 증시에 신용융자잔고는 사상 최고치를 기록 중이며, 추가 하락에 베풀리는 공매도 잔고 역시 지난해 3월 규제가 풀린 이후 최대치 일각에서는 현재 신용융자나 공매도 잔고 '절대액'만 보고 과열을 논하기는 어렵다는 신중론도 제기

韓 M&A 가도에...한투, 해외서 '돌파구'

한국경제 <https://zrr.kr/Hxkfe0>

한국투자증권은 칼라일이 바스프의 도료·코팅 사업부를 인수하는 거래에서 글로벌 인수금융 공동 주관사를 맡아 2020년부터 해외 인수금융 영업을 해온 한투가 신디케이션(공동 대출) 주선에서 벗어나 최일선에서 공동 주관사 지위를 떠낸 건 이번이 처음

KDB생명 인수전 의외의 흥행...삼성·한화·교보 모두 참여

매일경제 <https://zrr.kr/hvA3Pd>

KDB생명 인수전에 한국투자금융지주, 태광그룹은 물론 생명보험사 '빅3'인 삼성·한화·교보생명이 모두 참여 산업은행이 매각 전 유상증자에 대해서도 가능성을 열어놓은 상황으로, 대규모 유상증자가 실제 이뤄진다면 매수자의 자금 부담이 소폭 줄어들 여지가 있는 모습

"車보험 경상환자 기준이 먼저"...'8주률' 덩달아 밀리나

SBS Biz <https://zrr.kr/XOYazt>

손해보험업계가 기다려온 자동차보험 경상환자 치료관리 강화 제도, 이른바 '8주률' 시행이 밀릴 수 있다는 관측 소비자단체와 의료계를 중심으로 "누가 경상환자인지부터 다시 정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는 상황에서 경상환자 기준 개편 이후에야 8주률 논의도 본격화될 수 있다는 전망

'절대 안 판다' 신화 흔들렸다...스트래티지 매도 놓고 시장 논쟁

블록미디어 <https://zrr.kr/k6q4Bt>

스트래티지가 32BTC 비트코인을 매도, 이는 전체 보유량의 극히 일부에 불과했으나 비트코인 가격은 급락했고 투자자들의 반응은 예상보다 훨씬 민감 월가 일부에서는 시장이 매도 규모가 아니라 상징성에 반응했다고 보고 있어... 그동안 스트래티지는 비트코인 시장에서 가장 강력한 매수 세력의 상징이었기 때문

JP모건 CEO, 트럼프 암호화폐 법안에 전면전 선포...스테이블코인 보상 구조 저격

코인리더스 <https://zrr.kr/vdhj5n>

JP모건 최고경영자 제이미 다이먼이 암호화폐 시장 구조 법안을 정면으로 비판하면서, 비트코인과 스테이블코인을 둘러싼 월가와 암호화폐 업계의 충돌이 다시 폭발 그는 암호화폐 기업들이 은행처럼 예금 성격의 자금을 유치하고 보상을 지급하면서도 전통 은행 수준의 보호 장치와 규제를 받지 않는 구조에 문제 제기

Compliance Notice

본 자료는 투자자들의 투자판단에 참고가 되는 정보제공을 목적으로 배포되는 자료입니다. 본 자료에 수록된 내용은 당사 리서치센터의 추정치로서 오차가 발생할 수 있으며 정확성이나 완벽성은 보장하지 않습니다. 본 자료를 이용하시는 분은 본 자료와 관련한 투자의 최종 결정은 자신의 판단으로 하시기 바랍니다. 따라서 어떠한 경우에도 본 자료는 투자 결과와 관련한 법적 책임소재의 증빙자료로 사용될 수 없습니다. 본 조사분석자료는 당사 고객에 한하여 배포되는 자료로 당사의 허락 없이 복사, 대여, 배포 될 수 없습니다.